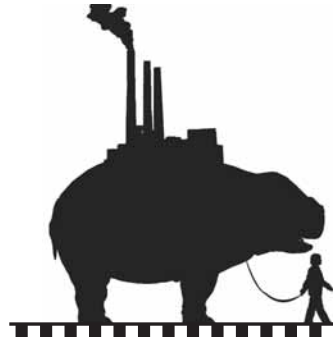


봉준호 감독 '옥자'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영광스럽고 흥분되죠”



시골소녀와 거대동물 우정

예고편·시놉시스 선공개

6월 넷플릭스·극장 개봉

“감독 입장에서는 칸영화제만큼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까다로운 팬들이 시골 마을에 모여 제 영화를 본다는 점에서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두렵기도 합니다.”

영화 '옥자'로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칸 진출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옥자'의 예고편 및 촬영 과정 일부와 시놉시스도 공개됐다.

'옥자'는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안서현 분)와 10년간 함께 자란 들도 없는 친구이자 거대 동물인 옥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평화롭게 지내던 이들에게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간다. 이에 미자는 할아버지(변희봉 분)의 만류에도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극비리에 옥자를 활용한 '슈퍼패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CEO) 루시 미란도(틸다 스윈턴 분)와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제이크 질린할 분),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 A.L.F 등의 탐욕이 드러난다.

봉 감독은 “옥자는 돼지와 하마를 합친 듯한 큰 동물”이라며 “소녀 미자와 동물의 사랑과 모험을 다룬 영화”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600억원)을 투입했고 브래드 피트가 세운 제작사 플랜B가 제작했다.

봉 감독은 “넷플릭스 덕분에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면서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투자) 망설이는 회사가 많았고, 영화의 내용도 너무 과



봉준호 감독(왼쪽)과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콘텐츠 최고 책임자가 15일 오후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영화 '옥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감하고 독창적이어서 망설이는 회사가 있었지만, 넷플릭스는 두 가지 리스크에도 영화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넷플릭스의 콘텐츠 최고 책임자(CCO) 테드 사란도스는 “이번 영화 제작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라며 “오래전부터 봉 감독을 흠모하고 있었고, 정말 봉 감독이야말로 영화계 장인이었다고 생각했다. 봉 감독과 일할 기회여서 욕심이 났고, 또 하나의 도전이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테드 사란도스 CCO는 최근 칸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영화 초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칸영화제는 언제나 뛰어난 작품만 초청하며, '옥자' 역시 배급과 무관하게 선정됐다”면서 “그동안 배급을 안 하는 영화도 칸영화제에 초청된 역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극장 상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영화가 동시에 극장 개봉하고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지만 큰 스크린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전제로 작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극장 스크린에서 아름답게 찍혀진 영화가 작은 화면에서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트리밍과 극장은 결국 공존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논란은) 두 방식이 어떻게 공존하는 게 아름다운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 “말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박 감독님은 공평정대한 분이시고, 취향도 섬세해서 본인 소신대로 잘 심사할 것”이라며 웃었다. 또 “'옥자'가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에 지친 심사위원들에게 즐거운 두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영화라는 확신은 있다”고 덧붙였다.

'옥자'는 오는 6월 28일(한국시간 6월 29일) 전 세계 190개국에 넷플릭스로 서비스되는 동시에 한국에서는 같은 날 극장에서 개봉한다. 극장 상영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옥자'는 한국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극장 개봉이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테드 사란도스 COO는 “앞으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굴할 것”이라며 “'좋아하면 울리는', '킹덤' 등 두 편의 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 오리지널 영화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악방송 봄 개편

전남대 성진기 교수 '아침이 오는 소리' 등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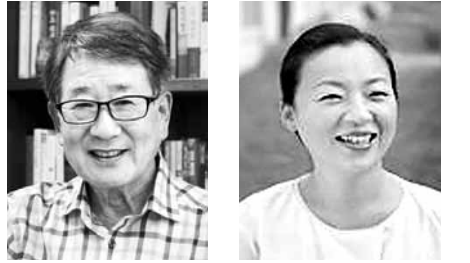
따뜻하고 아름다운 전라도 이야기와 우리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악방송이 15일 봄 개편을 단행했다.

국악방송은 매일 오전 5시~7시까지 청취자를 만나는 '아침이 오는 소리'를 신설했다. 전남대 철학과 성진기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악 장르의 음악을 선곡하고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20여년 전부터 '카페 필로소피아'를 통해 인문학 대중화에 앞장서 온 성 교수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을 균형있게 구성한 '인문학 이야기' 강의를 꾸준히 열고 있다.

'남도마실'(월~토요일·오전 9시~11시)도 새롭게 청취자를 찾아간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따뜻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당극 배우 지정남이 진행을 맡아 아름답고 정겨운 전라도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고남도 전통음악을 다양하게 선한다.

'추풍의 무릎길 산책'(월~일·오후 6시~7시30분)과 'FM 국악당'(일·오후 7시30분)은 계속 청취자를 만난다.

그밖에 그동안 광주 지역에 방송되지 않던 서울지역 프로그램 '남궁연의 문화시대'(월~토·오전 11시~낮12시)와 '바투의 상사디야'(월~금·오후 2시~4시), 예술가 백



성진기 전남대교수 방송인 지정남

스테이지(월~일·밤 12시~2시)도 만날 수 있다.

'바투의 상사디야'는 '코믹 버라이어티 판소리'를 표방하는 창작 판소리 '바투'의 남성 소리꾼 2인방 이상화·김봉영이 진행하는 웃고 울리는 국악 버라이어티다. '남궁연의 문화시대'는 동시대 다양한 형태로 대중과 통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남궁연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놓는 시간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악방송 라디오는 광주·나주·담양 FM99.3MHz,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딩더쿵 플레이아'를 다운로드 받아 청취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리텔' 다음달 종영

MBC 측 “재정비 후 돌아올 것”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다음달 종영한다.

MBC는 15일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6월 101회를 끝으로 30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며 “재정비를 거쳐 시즌2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과 TV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은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2015년 1월 설특집 파일럿으로 선보인 뒤 그해 4월 정규 편성됐다.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특히 시청률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다양한 소재의 방송을 선보였다. 초반에는 백종원 등이 인기를 견인했고, 후반부에는 김구라, 이경규 등이 화제를 모았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오는 28일 100회 특집 인터넷 생방송을 녹화하며 101회로 시즌1을 종영한다. 후속 프로그램은 미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윤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가정의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5.18특집 다큐멘터리 <인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가정의달 특선 3부작 <재> 초저출산시대, 아이가 희망이다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스페셜	00 일일드라마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40 하숙집 딸들 <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합설계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다큐 공감 <재>		20 헬로키토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5 코리언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 텔레몬스터 25 목?목! 키즈스쿨 55 용개 쇼나 2	00 뉴스브리핑
3	05 가정의달 특선 명견만리 탈출, 인구절벽 3부작	00 자공부부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행견문록 남도에 살아라 <재> 3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7	00 KBS 뉴스 10 리얼토크, 날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이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일일특별기획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격동의 세계 패권의 부활>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특별판>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깃속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결례선	10 앙코르 드라마 스페셜 <빨간 선생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5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VJ 토크대 <재>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남미연기 알타리노 고원기행
<아시아동물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시계마을 타기투!	-인디스의 위로 칼라와야>
인도네시아 상어잡이)	<비지락 북을>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6:00 한국기행(재)	아스파라거스 소고기구이)	16:30 두다다콩	<무릎도일 임성기>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21:50 EBS 디큐프라이
07:00 레이디 버그	12:00 EBS 정오 뉴스	17:15 얼마 깨투리	<영원한 제국-진시황릉>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글로벌 이매 찾아 심만리
07:45 출동! 슈퍼맘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08:00 당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8:00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1~4	<눈물로 쓴 병상일기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9:00 너티너츠	-조철모세로 이식 외>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디버그	19:30 EBS뉴스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극한직업	24:30 한국영화특선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대장간 사람들>	<꽃피는 봄이 오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음 4월 21일 癸卯)	
子	48년생 흐르는 물은 앞세기를 다루지 않는 법이다. 60년생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추측하지 말라. 72년생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4년생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어오겠다. 행운의 숫자 : 11, 35	午	42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대목이다. 54년생 협조자와 방관자가 함께하는 일이다. 66년생 대중 낯길 일이 아니다. 78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산이다. 90년생 상대의 충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2, 15
丑	49년생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6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처음에 직심한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크게 인정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영광이 보인다. 85년생 오래보람하며 바라던 것이 나타나서 기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24	未	43년생 기쁨이 보인다. 55년생 본격적인 상황에 임박했으니 만전을 기하자. 67년생 결과를 막상 열어보면 허망할 수다. 79년생 한 가지가 발목을 잡으면서 곤혹스럽게 만든다. 91년생 긴하이게 될 것이니 우선 챙겨 두라. 행운의 숫자 : 63, 20
寅	50년생 서두르면 실수하기 쉬운 날이니 의도적으로라도 천천히 행하자. 62년생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울려 퍼지는 경사가 보이느니라. 74년생 뜻밖의 일로 긴장하리라. 86년생 근거 없는 낭설이나 풍문은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8, 41	申	44년생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 56년생 끝까지 다 듣고 나면 빙그레 웃음이 나올 것이다. 68년생 권고대로 행하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80년생 어려움을 잠시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50, 73
卯	51년생 비뚤어지려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63년생 과녁치 말고 현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75년생 청신호를 접하게 된다. 87년생 시야를 넓히면 많은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3, 22	酉	45년생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절실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57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날 것이니 허점을 보이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69년생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81년생 긍정적이다. 행운의 숫자 : 82, 14
辰	52년생 현재는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일한 경험이 될 것이다. 64년생 부수적인 것이나 종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핵심을 잡자. 76년생 행운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88년생 소폭 이동수가 보이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3, 57	戌	46년생 주변인의 시각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을 가져라. 58년생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자마자 후회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잠담하는 것이 아니다. 82년생 신선한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행운의 숫자 : 42, 90
巳	53년생 그대로 두면 위험해서 아니 될 일이나 더 흔들리기 전에 속히 중심을 잡아라. 65년생 대단히 불리하니 일단 정지 하자. 77년생 심시일반의 원리로 진행태산 하리라. 89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버림 잘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27	亥	47년생 앞먼서도 빠져드는 어려움에 범하지 말라. 59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71년생 가능성이 거의 없이 빨리 접는 것이 상책이다. 83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28